

「보험자본건전성
선진화 추진단」
제1차 회의

2018.11.27(화) 17:00
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

모 두 말 씀

2018. 11. 27.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
김 용 범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- 안녕하십니까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.
 - 우선, 바쁘신 와중에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Kick-Off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- 최근 보험산업은 저출산, 고령화 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, 자본건전성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
 - 지난 11월 14일 1년 연기가 결정되었지만, 보험계약의 국제적 회계기준인 IFRS 17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,
 - IFRS 17를 기반으로 한 자본규제인 新지급여력제도(K-ICS)로의 변화를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이런 시점에서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출범은 향후 보험산업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경제·금융 여건의 폭넓은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 - 그간 新지급여력제도(K-ICS)에 대해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,
 - 현시점에서 新지급여력제도가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점진적으로 건전성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충분한지,
 - 또한 전체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, 제도 이행시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.

2 자본건전성 제도의 의의

- 자본건전성 제도는 금융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본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,
 - 개별 금융회사의 지급능력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,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제수단입니다.
- 자본규제가 강할수록 안정성이 제고되는 것은 사실이나, 금융회사에게는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.
 -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도 자본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금융산업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높일 수도 없습니다.
 - 따라서 자본 보유에 따른 손실흡수능력과 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'적정수준'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자본건전성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- 은행권의 '13년 바젤Ⅲ 도입, 증권업권의 '16년 순자본비율(NCR) 개편 등 타 금융업권은 개선된 자본건전성 제도를 이미 도입·시행하고 있습니다.
 - 자본건전성 제도는 기본적으로 각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·운영되지만, 보험권보다 먼저 새로운 제도를 도입·운영하고 있는 타업권과의 비교는 제도 설계에 좋은 자산이 될 것이며,
 - 타업권 전문가분들께서 이와 관련하여 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3

보험 자본건전성 제도가 미치는 영향

- 현재 세계 7위 수준('17년 수입보험료 기준)의 국내 보험산업은 1,06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,
 - 자본건전성 제도의 변화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전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
- 하지만 보험권의 자본건전성 제도 변화가 단순히 보험 산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 - 예를 들어 IFRS 17 및 新지급여력제도(K-ICS)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확대*하였는데
 - * 교보('17.7, 5억불), 흥국('17.11, 5억불), 한화('18.4, 10억불), KDB('18.5, 2억불)
 - 공급과잉에 따른 금리 상승이 신용등급이 우량한 다른 한국물 금리까지 영향을 주는 등 전체적인 외화 차입여건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까지 제기되었습니다.
 - 국채금리의 경우도 최근 20년·30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상황*이 지속되고 있는데
 - * 10년물 2.24%, 20년물 2.18%, 30년물 2.11% ('18.11.19일)
 - 듀레이션 갭 관리를 위한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는 거시건전성 측면, 국제논의 동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,
 - 금융시장 영향에 대한 다양하고 세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국내 보험산업 수준에 부합하는 자본건전성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-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건전성 제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물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규제이며,
 - 자본건전성 제도를 설계하는 지금은 앞으로의 보험산업은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.
- 사실 그간 보험산업에 대해 “보험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며 타 금융업권 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·반영하지 못하고 있다”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 상황이므로,
 - 오늘 「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」 발족이 보험산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- 아울러 여기 모이신 다양한 전문가 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셔서 보험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건전성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.
- 또한 이와 같은 추진단의 자본건전성 제도 논의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新지급여력제도(K-ICS)의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
 - 당국은 新지급여력제도(K-ICS)의 도입에 따른 보험사들의 불확실성을 잘 알고 있으며, 가능한 조속하게 일정을 발표하여,
 - 보험사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